

순창, 中 관광객 유치 청신호

대학생 230여명 초청 관광지 소개 열 올려... SNS 통해 관광효과 기대

순창군이 중국 관광객 유치로 민선 7기 비전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군은 지난 29일과 30일 양 이틀간 전주대학교와 연계하여 중국대학교 학생단 총 230여명을 초청해 순창군 일원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관광지 소개에 열을 올렸다.

지난 16일 중국대학교 처장단 방문과 23일 석가장대학교 대학생 캠프에 이어 이번 달에만 3번째로, 군은 해외 여행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초청된 관광객이 대학생으로 이뤄져, 이번 방문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될 수 있는 높은 관광효과를 군은 기대

하고 있다. 첫 날인 29일, 순창 인계에 위치한 건강장수연구소에 모인 대학생들은 2팀으로 나눠 1박 2일 일정으로 순창군 관광지와 농촌 체험활동 등을 이어갔다. 황숙주 순창군수도 방문 첫날 중국대학생들을 직접 맞이하며 환영의 인사를 남겼다. 황 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나가면서 서로 발전을 위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농촌체험 활동에는 가인 농장과 가이아 농장, 꽃간 애복 등을 방문해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은 치유농장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순창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과 장류체험관

방문도 잊지 않았다. 장류체험관에서 진행된 고추장 만들기에 한국 고유의 소스인 고추장을 만들며, 매운 맛에 다들 손 부채를 연신 입에 가져다댔다.

특히 더운 날씨 탓에 구슬 땀을 흘린 중국 대학생들은 실내온도 18도의 서늘한 발표소스토굴에 입장하며, 하나같이 즐거운 환호를 질렀다. 여기에 대학생들이 즐거워할 만한 VR 콘텐츠도 발표소스토굴을 둘러보는 재미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편 순창군은 향후 전주대를 비롯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실습과정 학점제, SNS 학생 기자단, 각종 행사 연계 등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다각도로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더위 시작... 남원시, 폭염대책 본격 추진

전문인력 등 799명 재난도우미로 활동 현장밀착형 폭염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

남원시는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각종 폭염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응 종합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4개 유관기관, 3개반 13개과, 23개 읍면동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해 현장밀착형 폭염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1860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독거노인생활관리사·지역자활방재단원

등 799명이 재난도우미로 활동하면서, 폭염 기상정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건강체크, 안부전화로 폭염피해 예방과 건강관리에 나선다.

심수정과 춘향교 사이에는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안개 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열기를 식혀주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총정로, 용성로 등 시내 주요도로 9개 노선 18km구간에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의 열기를 내리고 버스 승강장과 어르신들의 쉼터에는

생수·얼음을 공급해 시민들의 더위를 식힌다.

축산분야 폭염대응에도 특별 상황을 설치해, 폭염특보 발령시 축산과 4명과 23개 읍면동 자체상황반으로, 폭염 취약 축종 3개분야 (돼지, 닭, 오리)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3개 읍면동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등 관내 530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405개의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해 폭염 기상상황 및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전파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전광판·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SNS 등을 이용해 폭염대응 요령을 안내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지역자활센터, 4년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 선정

순창지역자활센터(센터장 한승연)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자활센터 수행 사업의 프로그램 수준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239개 지역자활센터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순창지역자활센터는 순창군에서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각 사업을 전개하

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운영과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 개발과 취·창업 및 탈수급 촉진, 지속적인 참여자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의 산업과 인구 구조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시형(118개)과 도농 복합형(54개), 농촌형(67개)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참여자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순창지역자활센터는 상위 10~30%에 해당하는 농촌형 우수기관에 선정돼 추가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순창지역자활센터는 2002년 설립돼 현재 두레건축, 순창올크린, 순창하안세상 등의 자활기업과 풍이랑두부방, 초록농부, 행복사랑도시락, 백옥세차, 신규교육(게이트웨이) 5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무료급식사업과 사회적기업추진사업 등 지역민의 후원을 결실노인 도시락·밀반찬 지원 등 차별화된 복지사업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에 따르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쳐기로 했다.

임실군 전역에 대형 태극기 물결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대주민 홍보

임실군 전역에 대형 태극기 물결로 펼쳐진다.

30일 임실군에 따르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태극기를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쳐기로 했다.

관내 주요기관에서도 태극기 게양운동을 펼친다. 임실경찰서와 임실교육지원청, 임실우체국,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임실농협, 임실치즈농협, 임실축협, 임실군산림조합 등이 참여하여 군민 모두가 단결 및 자긍심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임실읍을 중심으로 임실주공아파트 등 당당 구역 8곳을 지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홍보물 배부와 수시 홍보 방송 등을 실시한다.

국가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하며, 각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군 누리집(www.imsl.go.kr)에 배

너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지난 29일부터 군 청사에 대형태극기를 부착하고, 전광판, 유인물, 홈페이지 배너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태극기 달기 운동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관내 주요기관에서도 태극기 게양운동을 펼친다. 임실경찰서와 임실교육지원청, 임실우체국,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임실농협, 임실치즈농협, 임실축협, 임실군산림조합 등이 참여하여 군민 모두가 단결 및 자긍심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임실읍을 중심으로 임실주공아파트 등 당당 구역 8곳을 지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홍보물 배부와 수시 홍보 방송 등을 실시한다.

국가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하며, 각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군 누리집(www.imsl.go.kr)에 배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캠프'

임실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 예방과 올바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캠프를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또래상담 캠프는 임실군이 주최하고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여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지리산 생태탐방연

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는 임실동중학교와 임실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자로 활동 중인 학생들을 선발해 집단상담, 조별미션, 레크리에이션,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집단상담 시간에는 미술치료로 풀이보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담기법과 또래들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민소통실, 친절한 소통 행정 추진

남원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소통실에서는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휴서기 휴가철 동안 친절한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폭염주의보 등으로 안전을 위해 마을회관에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별 민간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 완료해 편의함을 제공하고, 120봉사대 운영으로 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가사생활 불편민원 등을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활현장 점검과 자전거 투어팀을 지속 운영해, 휴가철 시민생활 불편민원처리 및 휴서기 도시환경정비, 노면응급보수, 교통신호등과 쓰레기 투기물 등을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휴가철 고향 방문객 유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자치회식 강화교육 및 마을 동가 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공동체간 연계를 통해 남원에서 휴가 보내기와 남원으로 휴가 오기 등을 전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와 소득 창출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LH 매입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남원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시흥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매입대주택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임대사업이다.

남원시는 금년에 3~4인가구(2명)에 한하여 100세대를 모집예정이고,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일정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된다.

입주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장애인이며,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남원시 이창훈 건축주거 담당은 "LH 임대조건은 500만원이내의 보증금 및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입주자가 부담해 아하며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